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1
“외로움과의 멋진 이별이다.”

 마음열기

좋은 책(The All Better Book)이라는 책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오 존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골초들의 금연 노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등등.. 질문들 중 가장 난해한 질문중의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는 알아내야 한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제안해 보라”였다.

이 질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칼라니(8세) -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 이름과 주소를 묻는다. 그 다음에는 외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름과 주소를 묻는다. 양쪽 명단의 수가 같아지면 동시에 신문에 게재한다.

맥스(9세) - “어떻게 지내니?” 나 “오늘 하루는 어땠어?”라고 물을 수 있게 만드는 음식을 만든다.

매트(8세) - 사람들에게 애완동물이나 남편, 아내를 구해주고 살 곳을 마련해 준다.

브라이언(8세) - 노래를 부른다. 발을 구른다. 책을 읽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한다.)

 위의 내용들 중 마지막에 나와 있는 브라이언(8세)의 내용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최근에 스스로에게 “나 괜찮아?”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왜 그렇게 물어보았나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나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 이다.

 누군가 나의 외로움을 알아봐 주길 바랐던 순간이 있었나요?

 당신에게 ‘외로움’은 어떤 감정의 신호로 작용하나요? (예: 쉬어야 한다, 누군가를 찾고

싶다 등)

- ☞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 ☞ 사람들이 외로움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외로움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 그 신호는 어떤 말일까요?
- ☞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 주변에서 외로워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꼈나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전도서 4:9-12

9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11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을까?

12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 ☞ 성경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라는 말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11절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표현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 9절에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원리를 현대 생활이나 직장,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 ☞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예: 고민을 솔직히 나누기, 기도와 상담요청 등)



적용과 결단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함께함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들어오는 사람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 외로움을 느끼는 삶은 결코 완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더 나아가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함께함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소속의 기쁨, 존재의 인정, 사랑받는 기쁨, 나눔의 기쁨, 성장의 기쁨, 그리고 안식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단순히 외로움을 면하는 수준을 넘어, 내적 충만과 영적 풍요를 경험하게 하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외로움의 부재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함께함은, 개인이 온전히 존재하며, 사랑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이자, 궁극적인 삶의 축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예: 위로의 말, 도움주기, 격려와 기도, 함께 시간보내기 등)



기도